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5】

중국에서 모스크바로

권애라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920년 9월이고 일본 동경東京에서의 활동에 위해를 느껴 다시 중국 상해上海를 향해 일본 땅을 떠나게 된 것은 같은 해의 12월이었다. 이는 이종률의 전기에 의함이다. 이때 권애라는 동경에서 거의 잡힐 뻔했는지 비밀리에 탈출해 벗어났다. 권애라는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했으므로 일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구주九州의 어느 시골 출신 여자같이 가장을 하여 동경을 빠져나가서는 요꼬하마橫濱까지는 도보로 걷고 요꼬하마에서 고베神戶까지 배를 타고 갔다. 그리고 고베에서 다시 상해행 여객선을 탔다.

일녀日女로 꾸민 권애라의 모습과 행동은 아무래도 어색했다. 배에서 그런 권애라를 유심히 보던 다나까田中라는 중년 여자가 나직이 물었다.

"그대는 일본인이 아니지?"

그 태도가 매우 인자하여 권애라는 솔직히 대답했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 사람입니다."

솔직한 대답을 듣자 몇 마디 문답이 오가지 않아서 다나까 여인은 '조국을 찾으려는 젊은 이들이 수고한다'고 격려의 말까지 하면서 자기의 동행인 것처럼 행동하고 시키는대로만 따르라고 하였다. 이 중년 일녀의 도움으로 권애라는 무사히 상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를 만났다.

이때 상해에는 프랑스 조계租界 보창로寶昌路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하여 안창호安昌浩、김규식金奎植、이시영李始榮、이동휘李東輝、유동열柳東說、신익희申翼熙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상해에는 조선의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 애국부인회는 이화숙李華淑을 회장으로 하여 부회장 김원경金元慶, 총무 이선실李善實, 서기 이봉순李奉順、강현석姜賢錫, 회계 이교신李敎信、이메리, 출판 조숙경曺淑卿, 교제交際 강천복姜千福、박인선朴仁善, 사찰査察 윤숙경尹淑卿、홍광선洪光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애국부인회의 회원이 된 권애라는 소주蘇州로 가서 경해의숙景海義塾의 사범과師範科에 입학하여 유학을 하면서 제일의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제이의로는 학문을 하는 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경해의숙에서의 첫 학년 여름 방학이 되기도 전인 1921년 6월에 여러 외국어에 능한 재원 권애라는 애국부인회의 대표로 선발되어 소련蘇聯의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극동약소민족대회極東弱小民族大會에 참석하기 위한 장도에 올랐다. 이때 그 나이는 25세였다.

모스크바 극동약소민족대회는 1921년말과 1922년초에 걸치는 겨울에 석 달 동안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는 각민족별로 각종의 보고가 있고 그에 따른 토론이 행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선과 중국、몽고、월남越南、인도네시아、인도、자바、필리핀、일본 등 민족대표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 등 옵서버가 참석하여 모두 48개 민족의 대회가 되었는데 여기에 임시정부에서는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나용균羅容均、김시현金始顯 등 56명이 대표로 파견되었으며 그 56명 가운데 여성 대표가 4인이고 그 4인 여성대표 중 하나가 권애라였다. 50여명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선발된 대표는 각자 이목에 띄지 않게 행장을 차려 상해와 본국을 떠났다. 권애라도 일본 관헌官憲이 모르게 움직여 상해를 빠져나가 북경北京을 거쳐서는 북만주北滿洲의 하르빈에 도착했다. 여기에서부터는 일본군이 수비하고 있는 만소국경滿蘇國境을 넘는 것이 큰 난관이었다. 하르빈에서 치치하얼까지는 도보로 걸었다. 중국인 행색을 하고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는 소련땅 이르쿠츠크를 거쳐 험난한 여행 끝에 그해 8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2개월 이상 걸린 기나긴 여정이었다.

이상은 생전의 권애라에게서 구술을 받아 기록한 이종률의 전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안동대 교수 김희곤의 논문 '김시현의 항일투쟁과 그 성격'의 내용에서 보면 그 시기가 몇 개월씩 차이가 난다. 우선 당시의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의 명칭부터 다양했다. 참가국 언어별로 번역 통용되면서 공식적으로 불린 명칭이 달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극동민족대회이고 달리는 극동노력자대회 또는 극동인민대표대회로도 불렀다. 여기의 김시현金始顯은 1919년 5월에 상해로 망명했다. 이는 바로 국내에서의 3、1운동 직후이다. 그 두 달 뒤에는 상해에서 만주의 길림吉林으로 이동하였다. 상해의 임시정부 일을 잠시 돕던 김시현은 길림으로 가 그곳에서 김원봉金元鳳、양건호梁建浩 등이 급진 독립운동 단체로 결사한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고 만주지역 독립군 기지 가운데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지원하는 국내 조직에 깊이 간여했다. 그래서 1920년 초에 귀국하여 활약하던 김시현은 1920년 9월에 일제 관헌에 검거되어 국내에서 최초의 1년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출감한 뒤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여 극동민족대회의 대표로 선정되어 모스크바에 간 것이 1922년 2월이라고 하고 있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국내외에서 민족운동에 투신한 인물은 모두 두 군데의 국제회의에 시선을 집중시킨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 하나는 워싱턴 회의이고 하나는 소련에서 준비하고 있던 회의였다. 워싱턴의 것은 태평양군축회의인데 이승만은 여기에 주력하였다. 6개월 동안 상해 임시정부에 체류하던 이승만은 이 회의에 대비하여 외교활동을 벌이고자 하와이로 떠났고 신규식申圭植도 중국의 손문孫文 정부에 파견되어 공동대응하였는데 이 워싱턴회의는 192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열렸다. 이러한 워싱턴 회의가 준비되는 동안 소련에서도 이에 맞서는 국제회의를 기획하게 되었던 것이다. 1920년 7,8월에 코민테른이 제2차 대회를 열어 '민족、식민지 문제'를 테제로 채택하고 9월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동방민족대회를 개최하고는 다시 그 후속회의를 준비하였다. 자본주의 열강列强이 워싱턴회의를 준비하자 그들은 이에 대항하여 동방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모임을 준비했다. 1921년 11월 11일에 이르쿠츠크에서 '약소민족은 단결하라'는 표제로 극동 여러 나라의 공산당과 민족혁명단체 대표자의 연석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 그 골자였다.

국제 공산당 기구인 코민테른은 당시 조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독립운동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에 그 시선이 코민테른의 모스크바로 집중되었다. 자본주의 열강이 일제를 의식해 조선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데에 비하면 아주 반가운 일이었다. 이때에 이념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주의를 수용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많은 우국지사가 소련으로 가기를 희망했다. 모스크바에 가는 일로 1921년 가을은 독립운동가에게 흥분의 시기였다. 소련은 강대국이고 우리 민족문제를 적극 이해하고 원조하는 우방이었다. 극동민족대회의 소집을 주관하는 기관은 코민테른의 극동비서부였다. 그리고 조선인 대표자 선정은 이 극동비서부의 고려부高麗部가 맡았다. 이 기관은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 이르쿠츠크파와 긴밀한 관계를 이뤘는데 1921년 5월에 이르쿠츠크에서 구성된 고려공산당은 북경을 거쳐 11월에 상해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대회에 파견될 대표자 선정은 주로 상해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상해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많이 선발되었다. 그 가운데는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의 6명과 상해지부와 고려공산청년회 대표 2명이 포함되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대표적인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洪範圖를 비롯한 10명이 선정되고, 국내와 만주、일본에서도 선정되어 모두 56명이 이르쿠츠크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시현이 국내에서 활동하다 검거되어 1년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 때 일경의 현직 경부警部로서 독립운동을 하던 황옥黃鈺이 여비 50원元을 주어 상해로 가서 모스크바 대회에 참가하도록 권고하였다. 그의 권고에 따라 김시현은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에 가입하고 대회에 참가했다. 이때 황옥은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상해지부의 요청을 받고 친분이 있던 김시현 등 몇몇 인사를 천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그 전기를 쓴 이종률에게 '모스크바 대회에 참석할 국내 대표자 20여명의 선발 및 여비 마련을 위해 활동하면서 황옥에게서 여행증旅行證 12장을 받아 국경을 통과시켜 대표들을 보냈으며, 나는 여운형、나용균、김규식과 함께 이르쿠츠크를 경유하여 모스크바에 갔다'고 술회하였다는 것이다.

코민테른의 극동민족대회는 1921년 12월에 이르쿠츠크에서 열기로 하였다. 그런데 12월 1일까지 이르쿠츠크에는 대상자의 절반만이 도착하여 회의 개최가 연기되었다. 일본이나 중국의 참가자들이 신변의 위험을 줄이고자 몽고를 횡단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대다수 참가자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경쟁 상대인 워싱턴 회의가 연기되고 있어 코민테른에서도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코민테른은 회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개회가 이듬해인 1922년 1월말로 연기되고 장소도 이르쿠츠크에서 소련 수도 모스크바로 변경되었다.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 집결해 있던 조선민족 대표들은 소련 수도 모스크바로 가서 그 최고지도자 레닌도 만난다는 점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특별열차편을 이용해 이르쿠츠크를 떠나 1922년 1월 7일 모스크바역에 도착하였다. 대표들은 모두 자기의 파견 단체나 기관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학력과 투쟁 경력 및 참석 목적 등을 담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코민테른 극동부 고려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회의 주최측은 그 신분을 확인하고 대표자격증서를 교부하였다. 김시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자격증서를 받았으므로 권애라도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이때 김시현이 받은 위임장委任狀은 '조선노동대회朝鮮勞働大會'에서 받은 것으로 '노동대회지인勞働大會之印'이라는 대형 직인職印이 찍힌 것인데 '본회 회원 김시현을 대표로 선정하야 본년 11월 11일에 노서아露西亞 일꾸스크에서 개최하난 동양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출석하난 일체 권한을 위임함. 1921년 10월 24일 조선노동대회 회장 문탁文鐸 서기 홍성옥洪聖玉'으로 기재하고 그 성명 뒤에는 수결手決을 두고 있다. 김시현이 받은 이 위임장은 조그만 명주천 조각으로 만든 것으로서 솜을 넣은 누비옷 속에 감추고 갈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표信標를 권애라도 받아 지니고 갔을 터인데 그것은 아마 애국부인회에서 발부한 것이었을 것이다.

구술에서 김시현은 1921년 7월에 이르쿠츠크에 닿았다고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실은 그보다 4개월쯤 뒤인 1921년 11월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종률이 전기傳記에서 권애라가 1921년 6월에 상해를 떠나 8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한 것도 매우 사실과 다르다. 권애라의 당질녀 권경애權瓊愛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모스크바행에서 '애라고모'는 혹한에 심한 동상冬傷을 입었고 이 때문에 평생토록 겨울만 되면 고생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추해보면 권애라는 1922년 1월 1일을 전후해 특별열차편으로 이르쿠츠크를 출발해 1월 7일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는 혹한으로 동상에 걸리는 고생을 하였을 리가 없다. 동상은 그에 앞선 1921년 11월、12월에 걸렸어야 한다. 권애라가 하얼빈 哈爾賓에서 치치하얼齊齊哈爾까지 도보로 걸었다고 하므로 그때가 한겨울이었을 것이고 이때에 동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권애라는 6월에 상해를 출발하여 북경과 산해관山海關을 거쳐 철도를 이용해서는 봉천奉天(심양瀋陽)、장춘長春、하얼빈、치치하얼、만주리滿洲里로 이동해야 하는데

5면으로계속